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태극마크를 쏘라



김수린(광주시청) 안산(광주은행텐텐양궁단) 이가영(광주시청) 최미선(광주은행텐텐양궁단) 오예진(광주여대) 이승윤(남구청) 이동민(남구청) 박주혁(광주체고) 심유한(광주체고) 김민준(광주체고)

2026 양궁 국가대표 2차선발전 오늘부터 6일간 대장정 돌입

김수린, 안산, 최미선, 오예진 등 광주·전남 16명 2차 관문 도전
내달 1일 3회전 종료 후 32강 가리고 4일 남녀 각각 20명 선발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 발을 위한 2026 양궁 국가대표 2차선발전이 30일 부터 11월4일까지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된다.

2026 리커브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는 지난 9 월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1차 선발전을 통과한 남녀 각 64명이 출전한다.

이번 2차 선발전은 30일 1회전 (48점) 1,2차 토너

먼트, 31일 2회전 (64점) 1회차 토너먼트, 2회차 리 그전, 11월1일 3회전 (64점) 1,2회차 토너먼트, 3회 차 70m 3발×5세트 (4회) 기록경기로 진행된다.

1일 경기 후 64명 선발 역배점 (64점)+1회전 (48 점)+2회전 (64점)+3회전 (64점) 총점 합계 (240 점)로 남녀 32명을 선발한다.

이어 2일 4회전 (24점) 1,2회차 토너먼트, 3일 5 회전 (32점) 1회차 토너먼트, 2회차 동시발사 7경 기 리그전, 4일 마지막 6회전 (32점) 1,2회차 토너먼트와 3회차 70m 3발×5세트 (4회) 기록경기를 치른다.

경기 후 역배점 (32점)+4회전 (24점)+5회전 (32 점)+6회전 (32점) 총점 합계 (120점)로 남녀 20명 을 선발한다.

이번 2차 선발전에 광주·전남 공사 16명이 출 전한다.

여자부 1차 관문을 2위로 통과한 2025 양궁 국 가대표 김수린(광주시청)을 비롯해 '도요올림 픽 3관왕' 안산(광주은행텐텐양궁단), '파리올 림픽' 금메달리스트 남수현(순천시청), 전 국가 대표 이은경(순천시청), 최미선(광주은행텐텐 양궁단)과 오예진(광주여대)이 '그 실력 그대

로' 상위권에 포진했다.

유시현(순천시청), 이가영(광주시청), 김서 하(순천대), 서보은(순천대), 탁해운(순천대) 도 태극마크 도전을 이어간다.

남자부에서는 2025 국가대표 이승윤(남구청) 과 이동민(남구청)이 3차 관문에 도전한다.

광주체고 박주혁과 심유한은 '고교생 공사' 패 기를 앞세워 '무한 도전'을 이어간다.

한편 광주체고 김민준은 컴파운드 부문에서 광주·전남 선수로는 유일하게 참가해 주목 을 받고 있다.

/박희중 기자

2025 광주 세계3쿠션당구월드컵...내달 3일부터 빛고을체육관에서 명인열전

“글로벌 당구 도시” 광주, 힘찬 첫걸음”

“국제스포츠도시 브랜드 제고” 박종규 회장, 독심있는 결단 유치 한몫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발판으로 국제스포츠도시로 자리매김한 광주 가 글로벌 당구 도시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 다.

광주당구연맹은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빛고 을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 광주 세계3쿠션당 구월드컵”을 개최한다.

세계게를연맹(UMB)과 아시아게를연맹(A CBC)이 주최하고 대한당구연맹과 광주당구 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세계 최정상 선 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무대다.

세계3쿠션당구월드컵이 국내에서 열리는 것 은 이번이 17번째이지만, 광주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수도권 중심이었던 국제대회 개최 구조 를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과 스포츠 저변 확대 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변화를 이끈 중심에는 박종규 광주 당구연맹 회장의 독심 있는 리더십과 지역이 주도하는 체육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 었다.

지난 6월 치열한 개최지 논의가 진행된 가운 데 박종규 회장의 출연금 지원 결단으로 월드 컵 광주 개최가 확정됐다.

2022년 광주당구연맹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 회장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경계를 허무는 ‘광주형 당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앞 장서왔다.

그는 지역 기업인으로서 오랜 기간 체육 분 야에 관심을 가져왔고 “당구도 프로스포츠처 럼 도시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종목”이라며 당구 발전을 강조해왔다.

약 3년의 재임 기간 동안 광주 지역 당구 인 프라 확충, 전국 단위 생활체육 대회 개최 등 급 각한 성과를 남겼다.

특히 ‘박종규 회장배 전국3쿠션대회’, ‘광주3 쿠션오픈대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며 동호인 과 선수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대회 문화를 정 착시켰다.

박종규 회장은 “이번 월드컵은 광주가 글로 벌 당구 도시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며 “광 주가 전국을 넘어 세계 선수들이 찾는 도시로 성장하길 바라며, 시민 모두가 이번 대회를 통 해 당구의 매력과 가치를 느끼길 바란다”고 말 했다.

광주연맹은 도시의 문화적 역량과 체육 인프



독심있는 결단과 확고한 신념으로 ‘2025 광주 세계3쿠션당구월드컵’을 유치한 박종규 광주당구연맹 회장

라를 결합한 운영으로 ‘스포츠 도시 광주’의 이 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에디 맥스, 딕 야스퍼스, 프레드릭 쿼드루프, 토보론 블룸달, 마르코 자네 티 등 세계 3쿠션 최정상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 다. 한국에서는 조명우, 허정환, 김형준 등 대표 선수들이 광주를 무대로 세계 정상과 맞붙는 다.

이번 대회는 SOOP을 통해 전 경기가 생중계 되며, 전 경기 티켓 판매는 플랫폼 슈트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박희중 기자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조송현 협회장기 전국종별대회 ‘금·은’

이정현과 팀이워 혼복 우승
진성익과 호흡 남복 준우승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조송현이 제63회 대한 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종별배드민턴대회 혼 합복식에서 이정현(포천시청)과 팀을 이뤄 금 메달을 획득했다.

조송현은 29일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대 회 혼합복식 결승에서 김영혁-김민지 조를 2-1 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조송현-이정현 조는 초반 15-21로 뒤졌지만, 이후 21-11, 21-19로 뒤집으며 안정적인 경기 운 영 능력으로 상대를 압도했다.

조송현-이정현조는 32강에서 이원준-방주 영 조를 2-0, 16강에서 이상호-방지선 조를 2-0,

8강에서 최성창-황형정 조를 2-1로 꺾고 준결 승전에 진출, 김준영-김아영 조를 2-1로 이기 고 결승에 안착했다.

조송현은 팀 동료 진성익과 출전한 남자복식 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3월 2025 전국연맹총별배드민턴선수권 대회에서 복식 준우승을 차지했던 조송현-진 성익 조는 16강에서 김덕영-이상준 조를 2-0으 로, 8강에서는 김영혁-나성승 조를 2-0으로, 4 강에서는 안윤선-박경준 조를 2-0으로 제압하 고 결승에 진출했다.

조송현-진성익조는 마지막 경기에서 이상 민-김재현 조에게 1-2로 아쉽게 패해 우승을 다음기회로 미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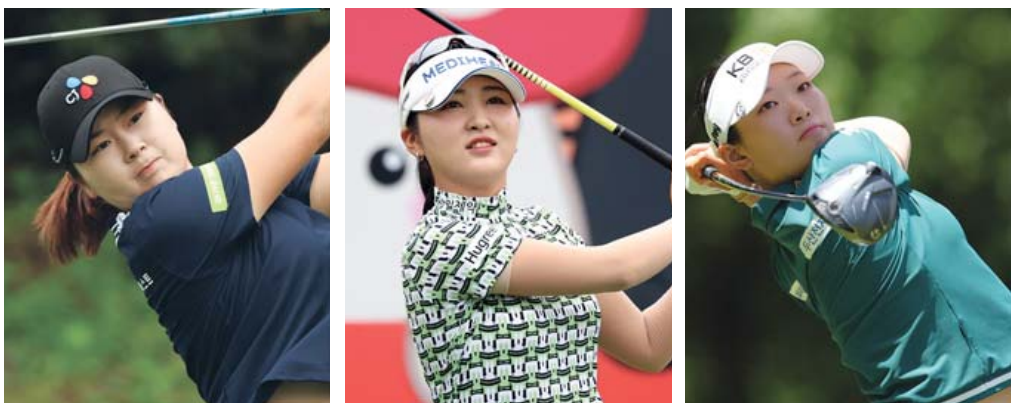
홍지훈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감독은 “부단



제63회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종별배드민턴 혼합 복식 금메달을 획득한 조송현과 이정현.
〈광주은행 배드민턴 팀 제공〉

한 훈련이 이번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원 동력이 됐다”며 “특히 조송현이 혼합복식과 남 자복식에서 모두 최선을 다하며 팀에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홍정민 이예원 방신실 <KLPGA 제공>

홍정민·이예원·방신실, 오늘 개막 에쓰오일 챔피언십 ‘진검승부’

“제주서 다승왕 가리자”

상금왕·대상포인트 경쟁도 안갯속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2025시 즌 27개 대회를 남긴 가운데 개인 타이틀 등 막판 경쟁을 이어간다.

30일부터 제주도 제주시 엘리시안 제주에서 열리는 에쓰오일 챔피언십은 이번 시즌 KLPG A 투어의 30번째 대회다.

이후 시즌 대회는 다음 달 7-9일 대보 하우스 디 챔피언십만 남는다.

각종 개인 타이틀은 물론 시드전을 파하기 위한 상금랭킹 6위 이내 사수 경쟁이 얼마 남 지 않은 만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상금왕 경쟁부터 여전히 뜨겁다.

홍정민이 13억1천787만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2위는 13억405만원의 노승희, 3위는 12억5 천316만원의 유현조다.

이번 대회에선 우승하면 1억8천만원, 2위는 1 억1천만원을 받는다.

대보 하우스디 챔피언십은 우승 상금이 2억5 천만원, 2위 상금은 9천600만원이 주어진다.

대상 포인트의 경우 이번 시즌 27개 대회에 출전, 1승을 포함해 18차례나 톱10에 오른 유현 조가 658점으로 선두에 오른 가운데 홍정민(52 4점)과 방신실(510점)이 뒤를 쫓고 있다.

다승왕 부문도 안갯속이다.

현재 방신실과 홍정민, 이예원이 3승씩 거둬 여전히 ‘단독 선두’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고, 2승의 김민술에게도 희망이 있다.

디펜딩 챔피언 마다숨은 타이틀 방어로 시즌 첫 우승을 정조준한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 하는 전인지는 추천 선수로 이번 대회에 나선 다. 2014년과 2015년 엘리시안 제주에서 열린 에 쓰오일 챔피언십 우승을 달성했던 전인지는 대회 최초 ‘3회 우승’을 노린다.

/연합뉴스

온라인서 ‘999만원’에 팔린 한국시리즈 입장권

정연욱의원 “명 백한 불법”

석도 49~55만원의 가격대를 형성했다.

도 11월2일로 예정된 6차전 입장권은 최고 99 9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정연욱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인기 경기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재판매”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압포 근절을 위한 지 침과 재판매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문제부 중검감사에서 “티켓 을 확보해 웃돈을 받고 파는 행위 자체를 명확 히 금지하고, 플랫폼 단위에서 재판매를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티 켓 예매 시스템 개선, 실명 기반 거래 구조 확 립, 판매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등을 포함한 실 효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지 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정 연욱 의원은 29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 권이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원에 거래된 것으 로 확인됐다”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문제 가 제기됐는데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 지 못한 채 압포 시장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 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한 국시리즈 1차전은 압포 사이트 ‘티켓베이’에서 최고 100만원을 넘어선 가격에 거래됐고, 일반